

# The History of Fundraising

모금의 역사

2024  
NPO스쿨

# 시작에 앞서

## 왜 미국 중심의 모금 역사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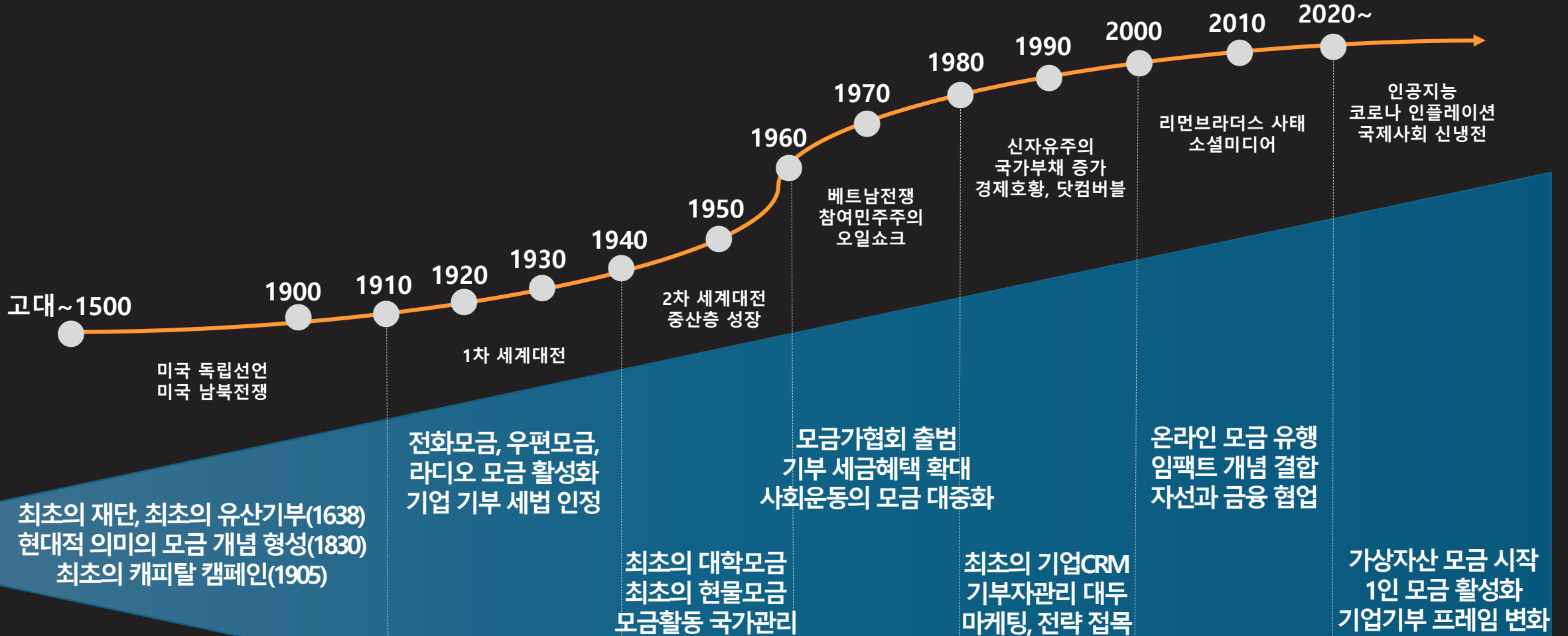
-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 모금(fundraising)은 미국 시민사회에서 주로 발달한 개념임
- 유럽의 자선기관들은 2차 세계대전 후 국가체계로 흡수되어 복지국가 형태로 발전
- 연방제의 특성으로 중앙 주도의 복지제도가 미약한 미국은 민간의 자선문화가 발달
-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적 개념의 모금(fundraising) 흐름을 살펴보는 일은 유의미함

## 미국 건국 전에는 어떠한 모금이 있었나?

- 고대부터 1500년대까지는 필란트로피에 의해 모금의 원형과 개념이 형성되었던 시기
-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구제십일조 등 종교적 차원의 기금 모집이나 1400년경 트루아 성당 재건축을 위한 모금 등 현대사회의 자선문화나 캐피탈캠페인의 원형이 관찰됨

\*이와 관련, 고대~근대의 세부사항은 NPO스쿨의 브리프 「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」 참조

# Timeline of Fundraising in the States



# 1500년대~1900년대

미국독립선언<sup>1776</sup>, 서부개척시대<sup>1803~1848</sup>, 미국남북전쟁<sup>1861~1865</sup>

1636

- 현대적 의미의 최초 사립대, 뉴칼리지대(New college) 설립

1638

- 하버드 목사의 유산(John Harvard's Charitable Bequest) 779파운드로 하버드대 개명 ★ 최초의 재단, 유산기부의 기원

1830

- 노예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 및 인도주의 운동 부각. 특히 노예폐지협회, 노예반대협회 등에서 강연회, 도서판매, 회비 징수, 모금활동으로 운동자금 마련, 시민참여 촉진 ★ 현대적 의미의 체계화된 fundraising 개념 형성
- 미국의 산업화와 경제부흥으로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 발생, 사회적 기금 필요성 대두
- 보스턴의 Old South Church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물품나눔행사(Fair Hand Fair) 개최 ★ 최초의 바자회



1867

- 기업인 피바디의 피바디교육기금(Peabody Education Fund) 설립 ★ 최초의 기업(인)재단

1877

- COS(Charity Organization Society, 자선조직협회), 자선문화의 확산

1886

- 인보관운동(Settlement house movement), 사회구조개혁과 사회복지의 체계화
- 뉴욕병원자선무도회(The New York hospital charity ball)로 대표되는 자선행사 확산 ★ 후원(자선)행사의 시초

188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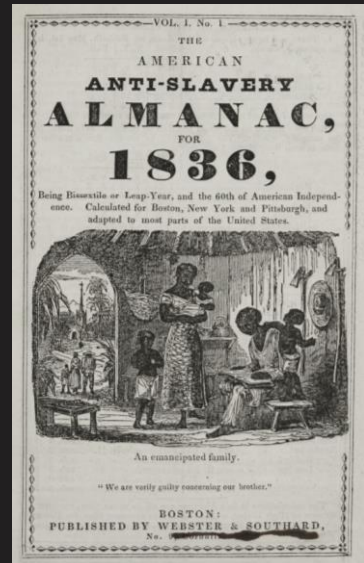
- 덴버에서 종교지도자들의 주도로 공동모금 시도 ★ 최초의 공동모금

1900

- 앤드류카네기의 기록적인 자선활동 ★ 기업 CSR의 원형

1905

-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으로 노벨재단 설립 ★ 빅벳 필란트로피의 뿌리
- 미시건 YMCA에서 건축 고액모금(9만불 모금, Charles Sumner Ward) ★ 현대적 의미의 최초 캐피탈캠페인



# 1910년~1930년대

1차 세계대전<sup>1914~1918</sup>, 미국 경제력의 유럽 추월, 2차 산업혁명, 경제대공황<sup>1929~1939</sup>

1913

- 록펠러재단 출범(1890년 록펠러의 3500만불 기부로 시카고대 설립)
- 클리브랜드에서 체계적 공동모금운동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★ 전화모금, 우편모금 대중화

1920

- 라디오 보급의 대중화 ★ 라디오 모금 캠페인 시작
- 라이온스클럽, 로터리클럽 등 사회단체의 자선활동 참여 활성화 ★ 사회단체의 자선 참여 활성화
- 적십자 기부를 계기로 기업의 자선활동 저변화 ★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확산

[한국] 1920년 서울지역 수해피해극복 민간 모금활동, 한국 최초의 현대적 모금 원형

1932

-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: 사회복지 확충, 사회복지 활성화, 세입법을 통해(Revenue Act of 1936) 자선단체 세금혜택 강화, 자원봉사 장려, 기업 기부행위 세법에서 인정되어 기업모금 활성화 ★ 최초의 기업기부금 세제혜택
- 빈민을 돕기 위한 구제활동의 확산, 지역모금 활성화, 공동모금운동 확산



This is what the Detroit News station WWJ in Detroit, Michigan, looked like in 1920. The de Forest 50-watt transmitter is in the center of the image, to the left of the operator, Fred Luthrup. (Detroit News collection)

# 1940년~1950년대

2차 세계대전<sup>1939~1945</sup>, 중산층의 성장, 사회기부 증가, 베트남전 시작과 반전운동<sup>1955~</sup>

1939



1945

1949

1953



- 전쟁 중 물자보급을 위한 현물모금 ★ **현대적 의미의 최초 현물 모금**
- 전후 구호 및 유가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모금운동 활발. 전후 복구를 위해 정부주도의 전쟁채권(War bond) 발행
- 의료지원, 난민구호 등 적십자의 구호활동 활성화
-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대규모 투자 시작, 하버드대학 8200만불 모금 ★ **최초의 대학모금**
-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공무위원회(Civil Service Commission) 설치로 모금자격 규정 ★ **민간 모금에 대한 최초의 국가관리**
- 전후복구, 전쟁고아 지원, 소아마비 퇴치 등 국가 주도의 범사회적 모금캠페인 유행
- 텔레비전 보급, 방송에서 셀럽/스타가 기부를 촉진하는 '텔레톤' 시작 ★ **텔레비전 모금의 시초**

[한국]

- 1951년 「기부금품모집금지법」 제정, 전쟁 중 '무자격 모금행위' 방지로 국민보호 취지
- 1953년 대한결핵협회 '크리스마스쌀' 전국민 모금 캠페인 시작



# 1960년~1970년대

참여민주주의 발달, 금본위제 폐지<sup>1971</sup>, 오일쇼크<sup>1973, 1979</sup>, 신자유주의 부각

1960



1969

- 미국모금가협회(AFP)의 전신 NSFR(National Society of Fund Raisers) 출범, 모금윤리 강조 ★ 최초의 전문모금가 협회
- 마틴루터킹의 시민권 운동(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(SCLC)에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운동자금 조달)
- 만찬 콘서트, 경매 등 전통적인 모금행사 및 자선이벤트 유행
- 닉슨 대통령의 세법개혁(Tax Reform Act of 1969)으로 감세 및 기부금 세금혜택 강화

[한국]

1961년 이남지역 수해로 '전국수해대책위원회' 발족(4200만원 모금), 민간모금의 일원화 필요성 부각  
1968년 '김신조 사건' 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방위성금 모집 시작

1970



- 경제침체로 사회복지 예산 감소. 민간의 모금활동으로 기부금 증가, 바자회 대유행
- 사회적으로 환경중요성이 부각되며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의 회원제도 발달 ★ 기부자 관리 개념 대두
- 시민권, 여성 등 주제운동의 사회적 확산, 모금조직의 전문화 ★ 모금에 전략 개념 도입
- 지미카터 대통령 당선으로 평화/인권/구호단체 성장. 해비타트 운동으로 사회운동단체의 친근한 이미지 확산
- 미국 공동모금회, Community Chest에서 United Way로 개명

[한국]

- 1970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성 등 규정 (공동모금회 운영미숙, 정부주도, 용도제한 등으로 유명무실하다 1983년 해당 조항 삭제)
- 1973년 국내 최초의 대규모 자선행사, '백만인걸기운동' 개최
- 1975년부터 매년 정부주도로 '불우이웃돕기' 모금운동 시작





# 1980년~1990년대

신자유주의 확산과 냉전, 국가부채 증가, 민간위탁 증가, 미국 최고의 경제 호황기, 닷컴버블

1981

- 레이건 대통령의 작은 정부, 군비지출과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민간에 대거 위탁, 민간기부 및 자선단체 활성화
-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자유의 여신상 복원 기금 캠페인, 카드 이용시 일정 기금 기부 ★ 최초의 기업 공익연계마케팅(CRM)
- TV, 라디오 등 미디어에 협찬(sponsorship)하여 사회공헌하는 기업 공익연계마케팅 확산

1982

- 에이즈 관련 모금행사 및 아프리카 구호 등 국제 기아 방지운동 대유행
- 미국모금가협회 명칭이 NSFR에서 AFP(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)로 변경
- 국제공인모금전문가(CFRE, Certified Fund Raising Executive) 발족, 전문성과 모금윤리 강조 ★ 최초의 전문가 자격과정

[한국]

1980년 「사회복지사업기금법」 불우이웃돕기로 복지증진(정부주도 모금)

1986년 ‘평화의 댐’ 건설을 위한 국민성금 운동(정부주도 강제적 모금, 기업 및 개인 모금액 총 639억원)

1990

- 인터넷 발달로 모금홍보 대중화, 모금에 마케팅 접목 본격화 ★ 온라인 모금 시대 개막
- 연말캠페인의 전국적 실행과 직장인 모금 유행

1993

- AFP, Red Cross, United Way 등 주요 모금기관들이 합의한 ‘기부자권리장전’ 선언

[한국]

• 1995년 「기부금품모집금지법」이 「기부금품모집규제법」으로 개정

• 1997년 「사회복지공동모금법」 제정, 전국에 공동모금회가 설치되며 정부주도 모금에서 민간주도 모금으로 전환

• 1998년,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적 ‘금모으기운동’ 실시(227톤, 18억불 상당)

• 대형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대중모금 대폭 확산(기부 저금통, 기부 관련 방송 프로그램)





# 2000년~2010년대

리만브라더스 사태<sup>2008</sup>, 사회의 지속가능성 회의감, 소셜미디어(SNS) 및 인플루언서 시대 개막

2000

- 빌엔멜린다게이츠재단 창립, 현재까지 538억불(70조원) 기부
- 페이스북 등 SNS가 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 고도화
- 인디고고에서 크라우드펀딩 시작 ★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
- 오마바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소액 풀뿌리 정치자금 모금 대성공(10억불, 1조원) ★ 정치와 모금의 협업 본격화
- 온라인기부플랫폼 고펀드미 기부 90억불(10조원, 2009년 기준) 성공, 온라인 모금의 대유행
-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이 더기빙플레지를 설립하여 재산의 절반 기부 서약
- 거액으로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빅벳필란트로피 운동 확산 ★ 임팩트 관점의 모금 확산

2009

[한국] 2006년 「기부금품모집규제법」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
2010

- 소셜미디어 홍보/온라인모금/크라우드펀딩의 번성,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 유행
- 유산기부, DAF(Donor Advised Fund, 기부자조언기금) 등 계획기부 확산
- 기부를 촉진하는 파생상품 개발을 위해 자선과 금융의 협업 ★ 자선과 금융의 협업 시작
-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분위기, 비영리단체와 기업의 협업 증가



# 2020년~현재

블랙 라이브스 매터, 인공지능 시대 본격화, 코로나 인플레이션, 국제사회 신냉전, 경기침체

2020

-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의 모금 시도, 비대면 모금 방식 발달 ★ 암호화폐 및 NFT 기부 출현, 가상세계 모금 시작
- 일부 자선단체 신뢰 저하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금 신뢰도 강화 시도
- 코로나 및 경제침체로 기부문화의 일시적 위축, 모금기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
- 인플루언서 영향력 증가와 1인 모금 확산
- ESG 확산으로 기업 CSR 고도화



2024

[한국]

- 2021년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지자체 모금 시작 (개인기부만 가능, 용도 제한)
- 2024년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이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- 202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 모금액 8천억원 돌파



고향사랑기부제

**'23년 1월 1일부터  
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.**

**고향사랑기부제**  
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 
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합니다.

국가균형발전 기여    지방재정 확충    지역경제 활성화

국가지자체    기부자(개인)    기부희망 지자체    지역주민 공동체

발행    기부금    기부금

자료조사 및 정리  
이재현, 최지혜